

■ 불법광고 판치는 도심

아파트 문도 전단지로 도배

③ 주택가

광주시 남구 D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이모(여·52·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아침마다 광고 전단지와의 전쟁으로 농초가 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부터 문과 벽에 붙어 있는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서 내려오다 보면 금세 엘리베이터에 발디딜 틈이 없어진다. 이 아파트의 경우 한 라인에 30세대에 불과하지만 한 번에 나오는 광고 전단지 양은 10ℓ 쓰레기 봉투를 가득 채운 정도다.

김씨는 “주민들이 자기 집 문앞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떼어내고 있지만, 미처 제거하지 못한 전단지들만 해도 이만큼이나 된다”며 엘리베이터 안에 가득 찬 전단지들을 가리켰다.

아파트 등 광주시내 주택가도 불법 광고물로 흐려졌다. 전 단지를 붙이려는 사람과 이를 제지하려는 경비원들의 숨바꼭질은 밤낮이 없다. 봉선동 M아파트의 경비원 박모(63·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요즘에는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너덧 사람이 한 차에 타고와서 한 사람은 시선을 분산시키고 나머지 몇 명이 아파트에 암에 들어가 한꺼번에 3~4장을 붙이고 간다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붙이고 떼고 ‘밤낮없는 전쟁’
라인 당 하루 10ℓ 봉투 가득

광주시 남구의 D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집 문앞에 붙어있는 불법 광고 전단지를 떼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봉선동 K아파트 경비원 김모(61·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엘리베이터에 CC TV가 설치되어 있는

데 전단지 배포자들이 계단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단속의 눈길을 피한다고 말한다. 김씨는 오후 4시 이후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에는 아파트 입구의 자동문을 닫아 입주민만이 출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단지 배포자들을 당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친다.

“문앞에서 기다리다가 안에서 사람이 나오면 들어가기도 하는데, 수상해서 내가 ‘어디 가나?’라고 물으면 이해지어 말을 어찌나 잘 들려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문 사이에 전단지를 끌어서 흔들면 문이 열리기도 하는데 그때 들어가서 전단지를 붙이고 가버려….”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안희순(27·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는 “직접 업체에 전화해 따지기도 하고, 구청에 신고 전화도 했는데 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경순(여·53·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외출했다 돌아오면 문이 온통 전단지로 도배되어 있고, 떼어내기 어려운 스티커 광고물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길거리나 주택과 담벼락 등 외부에 붙어있는 옥외 광고물의 경우 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부착된 전단지는 옥내 광고물로 처리되어 경찰에서 경범죄로 처벌한다.

그러나 옥내 광고물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주민들의 고발도 거의 없고, 일손이 크게 모자라 현행법을 잡으려 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규정은 불법 광고를 규제하기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에 따라 과태료 대신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하고, 불법광고물의 제작자나 살포업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법을 고쳐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또 벽보제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과태료 정도는 물 각오를 하고 단기로, 이를 무시하고 무차별 불법 광고물을 대량 제작·살포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과태료만으로 단속 한계… ‘영업정지’ 필요”

市,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건의

광주시는 11일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성인폰팅·대리운전 등을 선전하는 불법 벽보·전단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을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했다.

불법 광고물이 도심 주요거리에 무차별 살포됨에 따라 도시미관은 물론 청소년 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본보 4월 9일·10일자 9면)에 따

라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서다.

시는 건의문에서 “유흥업소 등이 불법 벽보와 전단을 주요 도로, 주택가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배포하고 있어 청소년 정서와 교통안전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나, 위반업소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게 한 현행 법률로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시는 또 불법 광고업소의 소유주도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선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설치한 경우에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를 무시하고 무차별 불법 광고물을 대량 제작·살포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매일밤 8시부터 쏘! 쏘! 쏘! 애들은 가라!!

태진아

4월 12, 13일

정통 성인나이트 만을 고집하는
광주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한자리에

김대중컨벤션센터서 ‘하늘바람팡 에너지전’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다. 이를 화석연료를 대체할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2007하늘바람팡에너지전’이 19~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 에너지 관련 전시회 중 유일하게 산업자원부가 올해의 유망전시회로 선정한 이 전시회는 15개국에서 102개 업체·18개국에서 152명의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참가 규모는 작년보다 업체 수는 36개(64.7%), 바이어는 74명(51.3%)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국

소·연료전지 업체인 ‘퓨얼셀에너지’(Fuel Cell Energy) 등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김대중센터는 또 이번 전시회를 국내 타 전시회와 차별화하기 위해 대한전기공사협회, 감리·설계·건축사·건축가 등 실수요자 2만여 명을 대거 초청, 참가업체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2007하늘바람팡에너지전’에는 ▲한·중·일 00다이어트 광주선언’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태양광사업단 워크숍 ▲수소연료전지사업단 워크숍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활용을 위한 세계개편 방안 토론회 등도 마련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외국인 근로자·결혼 이민자

13~15일 우산동 화훼단지

광주화훼관광단지번영회는 오는 13일부터 3일간 광산구 우산동 화훼관광단지에서 ‘꽃바람대축제’를 연다.

번영회는 축제기간 동안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화초 관리방법 강의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8도 특산물전 ▲노래자랑 등을 마련한다.

또 매일 입장객 1천 명에게 허브가 심어진 화분, 꽃삽과 꽃씨 등을 무료로 나눠준다. 방문객들은 1만여 평 규모의 화훼단지에서 다양한 꽃과 선인장·난·관엽식물 등 1천여 종의 식물을 볼 수 있고, 식물 정원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문의 945-6565.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이종욱씨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제2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이종욱(41·지하철건설본부 공사과, 건축 7급)후보와 신재식(46·회계과, 기능7급)후보가 당선됐다.

리딩레이트 형식으로 11일 차려진 선거에서 이씨 등은 투표 조합원 1천 323명 가운데 56.4%인 746명의 지지를 얻어 402표(30.4%)에 그친 김석준·안영철 후보 등을 능뛰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증집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등을 거쳐 1천만 원까지 전액 지원하고, 1천만 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만 보조한다.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거지 관할 보건소나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11일 전남대학교병원·조선대학교병원·광주기독병원 등 3개 병원을 외국인 근로자·결혼 이민자 무료진료 기관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등은 이를 병원에서 12일부터 진료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입국 후 90일 경과, 국내 발병 짧 병인 경우) ▲여성결혼 이민자(한국 국적취득 시 종료)와 이들의 자녀 ▲노숙인 등이다.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중

생 활 안내

교통안내	● 학교폭력
● 교통안내	국민안전처 112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경기북부지방경찰청 226-0112
철도안내 1544-7788	광주경찰청 233-2828
대한항공 222-2000	국민기자 1388
이시아나항공 221-6300	● 시아비데려 (02)118
한국도로공사 1588-2505	● 경폭력 1366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3-0155
	여자형사기동대 363-7739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생활 1391
	국번없이 1391
	● 평생교육 1389
	국번없이 1389
상 담	● 생활 1389
● 당직번호(서12일)	광주YWCA 1588-9090
이한진 232-0050	● 소비자 상담 232-6133
● 법무사회 범률상담(12일)	광주 YMCA 524-5400
조성주 239-1809	● 주부교실 232-0643-4
	국번없이 1389
	●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369-9881
	국번없이 1389

부킹천국
100%

